

文學과 人文精神

金 周 漢

—〈目 次〉—

Ⅰ. 人文精神의 말뜻
Ⅱ. 人文精神의 範圍

Ⅲ. 人文精神과 文學

I. 人文精神의 말뜻

文學과 人文精神이라고 하면 언뜻 理解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인문 정신이란 말이 生疎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인문정신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文學의 精神이 우리 人類의 정신 가운데서 차지하는 자리가 어디이며,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라는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다. 이에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戒女歌에 보면 「……人文이 생긴 후에 五倫이 좇아나니」¹⁾라는 句節이 있다. 閨房歌辭에 「人文」이란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매우 보편적으로 使用되었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人文」에 「精神」이란 二字를 겹치면 「人文精神」이란 말이 된다. 그리고 戒女歌에 나오는 人文이란 말이 本稿에서 다루려고 하는 범위에 든다고 하겠다.

戒女歌에서 人文이 생긴 후에 五倫이 좇아났다고 했다. 오류보다 인문을 앞에 놓고 있다. 요즘도 人文科學이니 人文大學이니 人文教育이니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걸 보면 由來가 오래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人文主義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本稿와 유사한 글들을 더러 볼 수 있는데 매우 苦心해서 쓴 글들이란 생각이 든다.²⁾

1) 金聖培 外 三人 編著, 注解 歌辭文學全集, 集文堂

2) 신동욱, 韓國近代文學과 民族主體性的의 問題, 韓國人의 主體性, 高麗大學校出版部, 1981. 9. 1, 2版

姜斗植·李誠完, 文學研究의 새로운 方向, 宋東準, 文藝學과 文學批評, 인문과학의

戒女歌에서는 五倫이 꽃아나라고 한 뒤에 바로 「閨中에 여자로서 다 알 수야 있나마는 七去之惡 옛法이라 三從之道 모를소냐」³⁾라고 하여 과거 朝鮮朝 女人의 「有識」함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야말로 당대 여인의 운명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 가사의 行間을 자세히 읽어 보면 나름대로 당시 여인들의 主體性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짙을 틈을 조짐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註2)에 列舉해 놓은 冊에서 多角度로 「人」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고 했는데 다름 아닌 主體性 문제이다. 이걸 한 마디로 「사람이 사람의 주인인」 그런 本性을 가리킨다. 곧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그런 本性을 말하는 것이다. 「文」은 무엇인가? 漢字의 열개로 풀이해 보면 𠂔錯畫也. 象交文. 凡文之屬皆从文」⁴⁾이라고 한다. 곧 엮여져 그런 것, 교차된 무늬라는 뜻이다. 무늬 없던 것이 무늬 있게 된 것을 「文化」라고 한다.

人文은 人類의 文化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의 무늬는 天文, 땅의 무늬는 地理, 사람의 무늬는 人文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交流, 사람과 사물과의 교류, 사람과 하늘과의 교류 그리고 이 셋을 근거 지어 주는 것은 사람 구체적으로 자기와 자기 內心의 교류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心 곧 마음과 마음의 교류, 마음과 사물과의 교류, 마음과 하늘의 교류에서 주인을 곧 자기의 마음, 그리고 마음 속에 들어 있는 德性이라는 자각과 믿음 이것이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체성을 주된 義理로 생각할 때 「主義」가 되어 「人文主義」라는 말이 合成되는 것이다. 인문주의의 뿌리인 「心」과 「德姓」 곧 心과 性이 그 뿌리이다. 이 心性의 속성이 어떤가? 대체로 「無對性」, 「虛靈性」, 「涵蓋性」, 「主宰性」 넷으로 규정할 수 있다.⁵⁾

새로운 방향,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9. 30 初版 發行

金容沃, 절차탁마 대기만성 통나무, 1987. 10. 20 중판 발행 老子哲學 이것이다.

(上) 통나무, 1989. 4. 20, 중판 발행

吳世榮(의 글 韓國 現代文學과 휴머니즘) 外 6人 휴머니즘 연구,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8. 4. 25, 初版 發行

李起哲,人間主義批評과 러시아 形式主義 人文研究, 第十輯, 第二號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3) 同注 1)

4) 說文解字注,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中華民國 75年 12月 增訂 二版

「文」은 또 사람의 가슴에 새기는 紋身, 後代에는 칼라가 크로스된 옷저고리로 해석된다.(金容沃 老子哲學 이것이다. 上. 통나무 1989. 4. 20 중판 발행)

5) 唐君毅, 中國文化之精神價值 葉 125, 臺灣 正中書局印行 中華民國 68年 9月 臺修訂 二版

넷 중에서 主宰性이 뿌리가 되겠는데 바로 「性情」이다. 성정 중에서도 「眞性情」이 그 核心이다. 진성정을 뿌리로 하는 인문주의의 內容을 대충 아홉 가지로 列擧해 볼 수 있다.

1. 최소한 사람이 만물의 靈임.
2. 사람과 사람의 각종 관계 곧 각종 人倫관계를 존중함.
3. 인류문화의 각 방면을 두루 존중하는 마음.
4. 역사를 존중하는 마음.
5. 사람의 人格價値가 사람이 외부에 표현하는 모든 문화활동, 문화성적의 가치보다 높다는 마음.
6. 학문상의 通識과 전문지식, 전문기능을 존중함.
7. 서로 다른 학술사상, 그릇된 학술사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寬容하려는 마음.
8. 非人文主義, 半人文主義思想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음을 알아서 함께 변론하고 고정하길 바라는 마음. 한편 변론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된 心理背景, 人物背景 및 그 文化背景, 歷史背景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래서 서로 「敵對」하지 않으려는 眞性情.
9. 理想的인 인문주의자는 최후에도 한 가지 信念을 가져야만 한다. 곧 자신의 인문주의의 사상은 모두 사람이 사람되는 까닭, 文化가 文化되는 까닭을 자각함으로부터 온다는 신념이다. 이와 같은 自覺은 자기가 할 수 있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함, 이상적인 인문주의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문화가 있다는 것, 사람과 문화가 있기에 곧장 사람이 사람된 까닭, 문화가 문화된 까닭을 자각하는 인문주의사상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인문주의사상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는 믿음. 따라서 인문주의자는 인문주의사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임을 믿을 수 있다.

古속의 인문주의사상을 기록한 모든 서적이 모두 불타 버린다 해도 사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사상은 재현할 것이며, 이런 서적이 다시 출판되리라는 믿음 만약 사람이 없어진다면 이런 사상도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과 그 문화에 대한 이치는 아마도 하늘과 땅 사이에 또는 天心 속에 존재할 것이란 믿음. 이런 믿음은 이상적인 인문주의자가 가질 수 있는 종교신앙이다.⁶⁾

6) 唐君毅, 人文主意之義義. 人文精神之重建 葉 590~605, 臺灣 學生書局 印行 中華民國 73年 2月 6版.

「人」의 「心, 性」, 「眞性情」 「主宰性」 등을 「精神」이란 말로 바꾸어도 큰 오해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언어 생활에서 「정신 없다」, 「정신 나갔다」, 「정신이 있나 없나?」 등 體言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정신에 없다」, 「정신에 있다」 등은 어색하고, 차라리 「마음에 있다, 없다」 등은 자주 쓰이는 것으로 봐서 마음과 정신은 쓰임새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道家神仙思想 곧 中國 秦漢時代를 中心으로 한 사상에서 精·氣·神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氣는 하나의 流行하는 存在와 존재하는 유행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神은 氣가 기타의 氣나 物에 널리 작용하는 것, 그리고 精은 氣가 內容物을 가지고서 氣나 物에 드러나는 것을 그 의미로 하고 있다.⁷⁾」고 할 수 있다.

「心」, 「心靈」, 「精神」이 人類文化와는 어떤 관계일까? 「인류의 모든 문화는 사람의 마음이 眞·美·善 등을 추구하려는 정신의 표현, 또는 사람의 정신이 창조한 것」⁸⁾이라고 할 수 있다. 神仙思想보다 좀 달리 정신을 해석하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무엇이 정신인가? 정신과 심령이란 글자를 우리는 통상 윗글에서와 같이 통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그 뜻이 실로 조금 다른 게 있다. 우리가 심령이라고 할 때는 마음의 자각능력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마음이 자각한 일체의 내용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속에 사람이 자각한 각종의 진·미·선 등의 목적을 포함할 수도 있다.

우리가 정신이라고 할 때는 심령이 그의 목적에 의거해서 자기의 자연생명, 물질적인 신체를 주체 지배하면서, 기타 자연환경, 사회환경과 감응관계를 일으켜서 그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심령을 정신의 본체, 정신을 심령의 작용이라 할 수 있어서 체와 용이 서로 의지하지만 그 뜻은 다르다.

심령은 순전히 내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신은 내면에 가득 차서 이 심령 자체의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의 인격의 정신은 생명을 가진 신체의 태도 기상 가운데를 운행하면서 동작과 언어에서 드러나면서 그 밖의 자연

7) 唐君毅, 中國哲學原論, 原道篇貳 第四章. 秦漢之神仙思想與鍊養精氣神之道之發展. 「茲可總述此道家之流精氣神之三名之義, 以言其關係. 氣乃以一流行的存在, 或存在的流行, 爲義. 神以氣之遍運于其他之氣或物爲義. 精則自氣之有其內繼而能表現于氣于物, 爲義.」臺灣學生書局印行 中華民國 67年 6月 3版(台再版)

8) 唐君毅 著, 增訂 心物與人生. 第三章 精神與文化. 一·心靈與精神之涵義不同. 「一切人類文化, 皆是人心之求真美善等精神的表現, 或爲人之精神的創造」學先書局 印行 中華民國 67年 10月 增訂 2版(台再版)

환경, 사회환경과 감응관계를 일으켜서 사업에 나타난다.

사람의 심령활동은 기껏 표현해 봐야 내재적이고 회억, 상상, 사상일 뿐으로 하나의 절대적 자유를 가진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활동은 도처에서 객관적인 외부 사물(만 사람과 사회를 포함하여)과 서로 감응하여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도처에서 外物의 제한과 속박을 받게 됨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언제나 곤란한 경우가 되면 될수록 정신의 자유를 추구한다.

정신의 자유는 겉친 장애와 속박제한과 규정 속에서 목적理想을 실현하는 자유이다. 그래서 그 정신의 자유는 상대적인 것 같다. 오로지 사람이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적인 것으로서 일체의 장애, 제한, 규정에 대해 먼저 끌고루 긍정하고 받아들여서 초월, 극복해서 목적이상을 그 속에 실현시킬 때에야 정신은 바로 하나의 내재적인 절대의 자유를 갖게 된다.

그래서 정신의 개념은 곧 마음과 마음 밖의 사물 주관과 객관, 자유와 장애 등을 통섭하는 종합개념이다. 우리의 인류문화는 정신의 표현이고 정신의 창조이다. 그래서 인류문화의 개념도 또한 마음과 마음 밖의 사물을 그 아래에 포함하는 하나의 종합개념이다.⁹⁾

引用이 너무 길어졌지만 정신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게 된다. 人文精神의 概念을 여타의 各種 人文思想, 人文精神과 대비하여 검토해 본다. 이 정신을 通時的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인문사상의 발전은 한편 사람이 인문 그 자체에 대해서 점차 더 깊고 더 넓게 생각함에 말미암고, 동시에 인문사상과 비인문, 초인문, 반인문 등 사상 등이 서로 관계를 발생함으로써 서로 의지하고 서로 스며들면서 또한 서로 반대되면서도 서로 이룩하는 그런 발전이다.

이런 발전의 과정 중에서 우리들은 비인문사상이 인문사상의 영역을 확대하고, 초인문사상이 인문사상을 끌어 올리고 차인문사상이 인문사상에 융합되고, 인문사상이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출현해서 반인문사상을 반대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 끊임없는 인문사상의 발전과정 가운데서 곧 일종의 인류정신의 지향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런 정신을 우리는 인문정신이라고 부른다.¹⁰⁾

9) 同注 8)

10) 唐君毅 著, 中國人文精神之發展. (一)

人文, 非人文, 次人文, 超人文及反人文之概念, 臺灣學生書局印行, 中華民國 68年 3月 5版(臺4版)

지금까지 人, 文, 人文, 心, 性, 情, 心靈, 精神, 人文, 人文思想, 人文精神 등에 대해 개괄했다. 그리고 이 정신은 하나의 「綜合概念」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 人文, 人類文化精神은 과거, 현재의 문화의 전 영역, 그리고 앞날의 문화의 가능성까지도 모두 긍정하려는 종합적인 개념, 종합적인 정신이다. 다음은 인문정신의 범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人文精神의 範圍

人類의 心性の 내용을 無對性 虛靈性, 涵蓋性, 主宰性 넷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核心을 주체성 自作主宰性이라고 했다. 이런 心性을 가진 人類는 分析的으로, 解剖學的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綜合的으로 整全的으로 해명, 규정하는 人間觀이다. 分科學問으로 해명, 규정된 속성을 아무리 堆積해 놓아도 힘을 가진 自作主宰力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는다. 對自關係, 對他關係, 對物關係, 對神關係 등에서 생기는 여러 가치를 모두 포괄해야 사람의 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의 학술사상, 사람의 문화는 원칙적으로 人文思想, 人文精神이지만 그 성격이나 내용, 연구대상 그리고 인문정신과의 관계 등의 차이에 따라서 非人文, 次人文, 超人文, 反人文 등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겠다.¹¹⁾

첫째 非人文精神이란 것은 사람 이외의 경험대상이나 이해의 대상 이라면 사람 이외의 自然, 추상의 形數 관계에 대한 것이니 자연과학이나 수학에 포함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超人文精神이란 사람 이상의 일반적인 경험적 이해로는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 예를 들면 종교신앙의 대상세계에 대한 것이다.

셋째 次人文思想 또는 精神은 人性, 人倫, 人道, 人格, 인류의 文化와 文化史의 가치에 대해 전폭적인 긍정과 존중심을 가지지 못하고 위에 열거한 여러 方面 가운데서 어느 一方面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하는 정신을 말한다.

넷째 反人文思想 또는 정신은 人性, 人倫, 人道, 人格 및 사람의 文化의 역사의 가치에 대해 소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왜곡, 말살하여 사람을

11) 同注 10)

사람 이외, 사람 이하의 자연물에 同化시키거나 사람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魔鬼의 손에 들어가게 하거나 佛家에서 말하는 魔鬼畜生の 길에,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思想, 精神을 말한다.

종합하면 인문정신이란 人性, 人倫, 人道, 人格, 사람의 文化 및 그 역사의 존재와 가치를 전폭적으로 존중하여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서 사람이 사람 이외, 사람 이하의 자연물 등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정신이라고 하겠다.¹²⁾ 人文精神의 史的인 흐름을 검토해 보면 위에 든 다섯 가지의 精神이 서로 섞여서 混流해 오고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가 文化史의 時代를 구분할 때는 主流, 主潮를 잡고서 말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해 온 정신, 心性을 네 가지로 구분할 때 主宰性이 核心이라고 한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기로 한다.

(중국의 유가가 중시하는)心性은 사람의 감각정욕을 가리키는 것만도 아니며, 순수인식이형을 추론하는 순이치적인 이성도 아니다. 사람들이 기예를 표현할 수 있는 새성을 가리키는 것은 더욱 아니며, 아득한 가운데 자연이나 신과 상통하는 생명이 일체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낭만정신에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 심성은 바로 사람의 어진 마음 어진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다. 개체인의 자신 속에 존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를 완성하고 文物를 성취하며 우주의 위대한 작용에 참여하려고 하는 실천적인 이성 또는 자작주재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인류는 이 마음과 이 성품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타인에게도 통하여 개인이나 사회조직 사이의 대립을 녹이는 근기가 존재하는 곳이다.

또한 사람마음과 하늘마음을 통하게 하고 사람과 자연을 통하게 하여 하늘과 사람이 일관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된다. 이 心性 말고는 하늘 꼭대기를 오르고 황천으로 내려가고 천하의 모든 길을 다 가보고 고금의 서책을 다 읽어보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맛보아도 사람과 자기, 하늘과 사람의 대립을 녹여서 일관시켜 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것(心性)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부진장한 보배가 들어 있다. 재주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의를 하고 사상상으로 그 경지를 뛰어 오르케 한다면 최후에는 뒤니뮈니 해도 이것으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안신입명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 보아 부끄럽지 않으며 안으로는 자신에게 가리워지지 않고 밖으로는 사물에 빠지지 않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 땅, 사람

12) 同注 10)

才 사이에서 하늘을 이고 땅을 더디고서 사람의 지극한 도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中國儒家所重之)心性, 既非只指人之感覺情欲, 亦非指純粹認識理型作推論之純理知的理性, 更非指人之能表現技藝之才性, 復非指在冥冥之中與自然或神相通之生命, 由浪漫精神之擺脫一切桎梏而見者, 此心性乃指人之仁心仁性, 即內在於個體人之自身, 而又以積極的成己成物參贊天地化育爲事之實踐的理性, 或自作主宰心, 人類只有此心性, 能屬於自己, 而又通於他人, 爲銷融個人與社會組織之對立之根基所在, 亦爲能通人心與天心, 人與自然, 使天人一貫之樞紐, 除此以外 無論上窮碧落, 下達黃泉, 行盡天下路, 讀盡古今書, 受盡人間苦, 更無處可發現一銷融人已天人之對立, 而一以貫之物事可得, 此物事看似簡單, 而其蘊藏則無窮無盡, 任你才智之士, 如何悔疑, 如何在思想上翻騰, 最後還是要回到此個物事, 才能安身立命, 而可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內不蔽於己, 外不溺於物, 而使人成爲天地人之三才之中, 以頂天立地而樹人極¹³⁾

對立을 해소할 수 있는 最後의 根基가 바로 우리 인류의 「人心人性」이란 것이다. 生命 그것이며 生命을 생명답게 해 주는 힘, 마음의 힘이다. 永遠의 安息處이다. 이 뿌리에서 각종 인문정신이 具體化하고 制度化한다. 곧 文化한다. 「참아 그만 둘 수 없는 마음, 성품」이다. 日食, 月食이 일어나면 일식 월식하는 개(犬)를 위해하기 위해 활을 쏘는 시늉을 하고 배고픈 개가 먹도록 밥을 길에 내어 놓는다. 참아 해와 달이 모두 파먹히는 것을 눈뜨고 못보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씨가 아니겠는가?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고 판단될 때 그냥 못 있는 종교의식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目前的 利害관계에 눈이 먼 사라이 눈을 뜨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性情이다. 價値의 根源이다.

이 人心人性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貫流한다. 「一以貫之」한다. 봄이 4계절을 관류하듯이 말이다. 여름이란 계절 이름은 봄이 왕성하게 자라는 단계를 가리키는 별명이다. 가을은 봄이 열매를 맺는 계절, 단계의 별명이며 겨울은 봄이 다음 해의 봄을 준비하기 위한 봄의 자체 정비기간의 별명인듯이 말이다. 仁의 여름이 禮, 仁의 가을이 義, 仁의 겨울이 智이고 仁에 대한 信賴가 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3) 同注 10) 葉 88

Ⅲ. 人文精神과 文學

인문정신은 非人文, 次人文, 超人文, 反人文을 모두 가슴에 끌어 안는, 그런 정신이다. 앞에서 言及했듯이 非人文精神으로 인문정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초인문정신을 가지고 인문정신을 끌어 올리며 차인문사상을 인문사상에 융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문정신의 새로운 형태를 끝없이 낳아서 반인문사상, 반인문정신을 되돌려서 인문정신을 충실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된다. 충실하면 아름답고, 충실하여 빛을 내면 위대한 세계가 되고, 위대한 힘으로 文化하면 眞善美를 아우르는 文學이 된다고 하겠다.

仁心仁性은 善·美·眞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理性으로 道德理性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東方文化는 道德一元에다가 文化多元을 강조하는 것이다. 宗教의 意識(精神意識의 준말)도 人文精神意識 곧 文化意識에 포함된다고 하겠으며, 장래의 새로운 형태의 文化도 이 의식, 이 理性을 뿌리로 하여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끊임없는 自覺과 超越에다가 大公無私한 普遍性을 그 特殊性으로 가진다.

自然科學이나 數學, 幾何學 등 非人文精神의 具體物인 온갖 학문이 追究하는 眞이나 宗教, 道德이 추구하는 善이나 문학 예술이 추구하는 美는 各自가 獨立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根基에는 道德一元的인 정신의식이 虛靈明澈하게 터잡고 있다고 보기에 相互 交通하고, 서로 涵攝해서 整全한 정신세계를 구축한다고 보는 것이다.¹⁴⁾

年前에 우리 韓國의 抒情에 대해서 素朴한 생각을 披瀝해·본 적이 있지만¹⁵⁾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나, 向外離心力의 澎湃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한 번 쯤은 생각해 봐도 좋은 그런 視角이라고 생각한다. Fetishism이 팽배한 현대를 요리하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해이 망각되어가는 요즘, 量에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 회생정신을 그 자체로 무시해 버리려는 감정이 도도한 오늘날, 더욱 고려해야 할 정신이 아니겠는가?

文學은 美를 추고하는 예술의 한 갈래로 흔히 생각되고 있다. 美學의 理論은 다양하고 심오하기도 하여 여기 일일이 다룰 수 없으나 대체로는

14) 唐君毅 著, 文化意識與道德理性(下) 第六章 藝術文學意識與求真意識, 臺灣學生書局, 中華民國 67年 4月 3版(臺再版)

15) 拙稿, 한국적 서정, 嶺大文化 第15輯, 1982

감정과 사상의 형상화라고 생각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詩를 例로 들 때에 근대시와 근대 이전의 詩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서정시, 근대 이전의 서정시를 魂의 詩, 精神性的의 詩 등으로 나누고, 근대시를 가치중립적인 技巧詩 또는 삶과 사회에 책임을 지는 詩 등으로 나눌 때 또 유기체적, 변증법적¹⁶⁾으로 나눌 때에 本稿에서 다루는 인문정신, 문학의식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인문정신의 범위를 인류의 文化 전반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신과 이 의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非辯證法的」¹⁷⁾이라고 前提를 달고 있다 할 때 비교가 가능하겠는가? 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그러나 인문정신이 포괄하고 있는 문학의식, 그리고 이 의식의 所產物인 作品이 작품 그 자체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비교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

作家와 作品을 分離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대 이전의 문학사상과 그 관계를 분리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근대의 문학사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同列에 놓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고 하겠으나, 지금도 삶을 위한 문학, 문학을 위한 문학의 두 흐름은 그 정도의 차이는 근대 이전의 그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위에서 말한 兩 精神의 비교 검토의 一面性的의 의의는 있다고 하겠다.

整全한 입장에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作家로서만 보려는 고집이라든가 돈덩이라는 견지에서의 태도라든가 票라는 次元에서 사람을 본다는가 하는 人間觀 곧 分解된 사람보기의 피해를 감안한다면 혼전한 모습을 최기 본적인 層에서 인간을 보려고 하는 정신도 매우 필요한 것이다. 물론 분해식으로 볼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봐야 하겠지만, 이런 관점이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할 땐 사람이 도구가 되어 버리고 이런 태도에서 문학을 볼 때는 삶과 동떨어진 작품으로만 보게 되어서 인문정신의 核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天運循環, 無往不復」¹⁸⁾이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긍정한다고 할 때 質이나 量 두 측면에서의 다양한 변화는 인정해야 하겠지만, 어떤 形式은

16) 金允植,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이태올로기 비판

I. 근대적 성격비판, 3 근대시사 방법론 비판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4. 25 初版發行.

17) 同注 5) 葉 154~162. 第六章 (七) 中國儒家所謂心性之直道而行及心與其所對之自然之本性, 皆超矛盾辯證歷程者.

18) 閔錫泓 새로운 歷史學과 人文科學—Annales學波를 中心으로— 인문과학의 새로운 방향,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9. 30 初版發行.

不變의 모습을 가지고서 반복순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개성 창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문학세계에서 진부한 퇴영적인 것일진 몰라도 역시 일면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고 볼 때에 문학의 변화와 불변의 양면에 대한 애정(인문정신)은 지속적인 것이고 또 지속적인이어야 할 것이다.

문학을 하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문학을 다른 그 무엇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인문정신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생각이지만, 문학의식에는 도덕이성이 「自覺, 自己超越, 眞誠惻恒……」 등의 心態로 깔려 있다고 볼 때(물론 敎條的인 것이 아닌 것으로) 위대한 문학은 時空을 초월하여 항시 인간적이고 인문정신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人文精神의 말뜻과 범위 그리고 문학과와의 관계 등을 극히 粗薄하게 살펴 보았다. 구체적인 검토는 앞으로 문학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선 그 大綱이라고 할 수 있는 精神意識과 구체적 작품평가에 임할 자세 등을 언급했다고 하겠다. 이 글을 쓰는 데는 唐君毅氏의 견해를 많이 참작했음을 밝혀 둔다. 「玩人喪德, 玩物喪志」¹⁹⁾의 옛말이 지금도 역시 타당한 말이란 생각이 짙어진다. (1989. 7. 20)

19) 書經 旅獒